

국제사회의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ODA 제공 현황과 시사점

박소정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성과분석팀 전문연구원 (sojeong@kiep.go.kr. Tel: 044-414-1241)



차 례

1.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DP)의 개념 및 논의 동향
2. 국제사회의 스포츠 ODA 현황
3. 우리나라의 스포츠 ODA 현황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UN은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DP)'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 교육, 성평등, 평화 구축 등 개발 의제 실행을 위해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해왔음.
 - 2001년 SDP 특별자문관 임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국제 스포츠 개발 및 평화의 날(IDSDP)을 지정하였으며, 2024년 UN 총회 결의문에서 스포츠의 SDGs 기여를 재확인함.
 - 본고에서는 OECD가 발표하는 CRS 통계를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SDP 관련 지원 현황과 특징을 정리함.
- ▶ 최근 10년간(2015~24년) 국제사회의 스포츠 ODA는 총 879건, 3억 3,456만 달러에 달하며, 독일이 전체의 38.9%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공여국임.
 - 지출 규모 기준 상위 공여국은 독일(1억 3,0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063만 달러), 호주(1,650만 달러), 캐나다(1,500만 달러), 일본(1,400만 달러) 순이며, 상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임.
 - 지원 분야는 교육(62%),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8%), 보건(10%), 정부 및 시민사회(7%) 순이며, 교육 분야는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 주요 공여국들은 장기 브랜드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를 개발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 기반과 우호 관계 강화로도 이어가는 추세임.
 - 독일은 GIZ를 통해 S4D 글로벌 프로그램과 S4D Africa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음.
 - 호주는 1995년부터 PSP·ASP·Team Up으로 이어지는 30년간의 연속적 프로그램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왔음.
 - 일본은 유도 등 자국의 전통 무도를 스포츠 ODA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JICA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과정에서 발표된 'Sport for Tomorrow(SFT)'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기도 함.
- ▶ 한국은 지난 10년간 658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향후 한국이 보유한 스포츠 경쟁력과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독자적 브랜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장기·연속성 있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년간 한국의 스포츠 ODA 총지출액은 88%가 교육 분야, 76%가 동티모르 사업에 집중되었고, 전반적으로 체육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임.
 - 향후 외교부의 스포츠 공공외교 활동과 스포츠 ODA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한국의 경험과 강점을 반영한 브랜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DP)의 개념 및 논의 동향

■ [개념]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SDP: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활용하여 건강, 교육, 사회통합, 성평등, 공동체 발전 및 평화 구축 등 다양한 개발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접근 방식임.¹⁾

- SDP라는 용어가 UN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1년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아돌프 오기 전 스위스 연방 대통령을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특별자문관으로 임명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였으며,²⁾ 이후 여러 UN 문서, 결의안, 기관명에서 이 용어가 그대로 계승됨.
- 공중보건, 사회화, 사회적 포용, 경제발전, 문화 교류, 갈등 해결 등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개념인 스포츠를 통한 개발(SfD: Sport for Development)³⁾도 유사 개념으로 존재함.
- SfD, SDP 등 유사 용어가 학계와 실무에서 혼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UN이 총회 결의안 채택(2003), 특별자문관 임명(2001), 세계 스포츠의 날 제정(2013)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SDP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함.

■ [범위] SDP는 스포츠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프로그램 설계 유형과 주제 영역에 따라 구분됨.

- [프로그램 설계 유형] SDP 프로그램은 스포츠와 개발 목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스포츠 플러스(Sport Plus) △플러스 스포츠(Plus Sport)로 유형화할 수 있음(표 1 참고).⁴⁾
- [주제] SDP의 주요 주제는 △보건 △교육 △성평등·여성 역량 강화 △사회통합·포용 △평화 구축·분쟁 예방 △경제 개발·고용으로 구분됨.⁵⁾

1)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2003),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pp. v, 24.

2) UN(2001. 2. 28.), "Secretary-General Appoints Adolf Ogi, Former President of Switzerland, Special Adviser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G/A/768(검색일: 2026. 5. 5.).

3) Lyras&Welty Peachey(2011), pp. 311-326.

4) Chen, S.(2018), "Strengthening the Global Framework for Leveraging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UN DESA, p. 2.

5)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2003),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pp. v, 2, 5-11, 15.

표 1. SDP의 접근 방식 및 주제

접근방식	내용
스포츠 플러스 (Sport Plus)	• ‘스포츠 발전’을 우선 목표로 하고, 사회적 효과는 파생효과로 기대 - 스포츠 참여 증대·기술 개발 등 스포츠 자체의 발전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접근 -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과정에서 건강 증진, 교육 효과, 사회성 향상,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개발 효과를 부가적으로 추구
플러스 스포츠 (Plus Sport)	• 스포츠 자체보다 사회 개발 및 평화 증진이라는 정책적·사회적 성과 달성에 초점 - 성평등·HIV/AIDS 예방·사회통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스포츠의 인기와 접근성을 활용해 대상 집단을 프로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주제	내용
보건	신체활동 증진, HIV/AIDS 교육·예방접종 캠페인 등 보건교육, 비전염성 질환 예방, 정신건강 지원(우울증 감소, 집중력 향상 등)
교육	체육교육(PE), 생활기술 교육(정직·존중·팀워크 등 핵심 가치), 학업 참여·성취도 제고, 난민·취약 청소년 교육 접근성 향상
성평등·여성 역량 강화	여아 스포츠 참여 확대, 자신감·자존감 향상, 젠더 고정관념 도전, 여성 역량 강화 및 차별 감소
사회통합·포용	장애인·난민·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동체 결속 강화
평화 구축·분쟁 예방	사회 재건 및 화해 촉진, 사회결속 강화, 긴장 완화 및 대화 생성
경제 개발·고용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동자 역량 강화(리더십·노력의 가치 등)

자료: Chen, S.(2018), “Strengthening the Global Framework for Leveraging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UN DESA, p. 2;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2003),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pp. v, 2, 5-11,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SDP 논의 경과] UN은 스포츠를 개발·평화 의제의 공식 수단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별자문관 임명, 기관 간 태스크포스 구성, 총회 결의 채택 등을 통해 SDP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왔음.

- 스포츠는 1920년대부터 개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발적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새천년 개발목표(MDGs) 수립을 계기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주목받기 시작함.⁶⁾
- 2001년 SDP 특별자문관 지정을 시작으로 UN은 스포츠를 개발·평화 의제에 공식 편입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UN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출범하였음.⁷⁾
- 2003년에는 UN 제58차 총회 결의를 통해 교육·보건·개발·평화 증진 수단으로서 스포츠·체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2005년을 ‘세계 스포츠·체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로 선포했음.⁸⁾

■ [국제 SDP의 날 제정] UN은 매년 4월 6일을 ‘국제 스포츠 개발 및 평화의 날’로 기념하고 스포츠가 개발과 평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알림.

6) 분쟁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가 활용되었으며, 이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임시적 접근 방식의 하나였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2년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음. sportanddev(N.d.a), “History of Sport and Development”(검색일: 2026. 5. 5.); sportanddev(N.d.b),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검색일: 2026. 5. 6.).

7) UN(2001. 2. 28.), “Secretary-General Appoints Adolf Ogi, Former President of Switzerland, Special Adviser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SG/A/768(검색일: 2026. 5. 6.);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2003), pp. 1, v, 5.

8) A/RES/58/5(2003. 11. 3.), “Sport as a Means to Promote Education, Health, Development and Peace,” pp. 1-3.

- 2013년 UN 결의안은 매년 4월 6일을 ‘국제 스포츠 개발 및 평화의 날(IDSDP)’로 공식 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 안건은 주요 위원회 심의 없이 총회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⁹⁾
- 4월 6일은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근대 올림픽 개막일을 의미하며, 이 결의문이 UN이 스포츠를 개발과 평화의 수단으로 인정한 대표적 문서임.¹⁰⁾
- 2014년부터 IDSDP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행사의 주제는 [표 2]와 같음.

표 2. 최근 IDSDP 기념행사 주제와 주요 내용

연도	주제	주요 내용
2020	#Be Active and healthy to beat #COVID-19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체활동과 스포츠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 역할을 강조
2021	Resilience: Building Back Better	- 코로나19로 심화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욱 강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스포츠·신체활동 시스템 재건 방안을 논의 - 팬데믹 극복과 지속가능한 회복 과정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정한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
2022	Securing a Sustainable and Peaceful Future for All: The Contribution of Sport	- 스포츠를 인권 보호와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성 강조 -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행동 강화를 강조
2023	Scoring for People and the Planet	- 스포츠의 SDGs 기여도를 평가 ①기후행동·지속가능성 ②성평등 ③인종차별 및 혐오 발언 근절을 중심으로 논의
2024	Sport for the Promotion of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 결의문(79/8)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제로서의 스포츠」를 채택하고, 스포츠가 평화·개발 증진, 신체·정신건강 향상, 성평등 및 여성·여아 역량 강화, 인권 존중과 인종차별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 - 역대 최대 규모 ‘스포츠 지속가능발전 서밋(#Sport4SD)’을 개최하여, 2030년까지 스포츠의 SDGs 기여 확대를 촉구
2025	Leveling the Playing Field: Sport for Social Inclusion	- 스포츠를 사회통합·성평등·경제발전의 효과적 수단으로 강조 - 제2차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도하)를 앞두고 스포츠를 사회개발전략의 핵심 축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
2026	Sport: Building Bridges, Breaking Barriers	- 증거 기반 접근과 모범 사례를 통해 스포츠의 SDGs 기여 효과를 입증하는 데 초점 - 스포츠를 성평등·정신건강·사회통합·평화 구축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강조

주: *는 2007년 자료.

자료: UN DESA,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https://social.desa.un.org/issues/sport-for-development-and-peace/international-day\(2023, 2024, 2025, 2026년\)](https://social.desa.un.org/issues/sport-for-development-and-peace/international-day(2023, 2024, 2025, 2026년)); IOC,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https://www.olympics.com/ioc/idsdp\(2024, 2026년\)](https://www.olympics.com/ioc/idsdp(2024, 2026년)); WFUNA, “Celebrating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https://wfuna.org/press-release/celebrating-international-day-of-sport-for-development-and-peace\(2022년\)](https://wfuna.org/press-release/celebrating-international-day-of-sport-for-development-and-peace(2022년)); UN DESA, “2021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https://social.desa.un.org/issues/sport-for-development-and-peace/events/2021-international-day-of-sport-for-development-and\(2021년\)](https://social.desa.un.org/issues/sport-for-development-and-peace/events/2021-international-day-of-sport-for-development-and(2021년)); UN DESA, “International sport day moves indoors, with plea to stay active during self-isolation,”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social/international-sport-day-2020.html\(2020년\)](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social/international-sport-day-2020.html(2020년)); 2025IDSDP 회의록; 2026IDSDP 회의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A/RES/67/296(2013. 8. 23.),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pp. 1-2.

10) A/RES/67/296(2013. 8. 23.), p. 1; IOC(N.d.), “International Day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검색일: 2026. 5. 6.).

2. 국제사회의 스포츠 ODA 현황

- 국제사회는 스포츠가 지닌 사회적 통합, 교육적 가치, 그리고 평화 구축 기능에 주목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스포츠 관련 ODA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UN이 스포츠를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공인함에 따라, SDP라는 개념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서 점차 널리 퍼지고 있음.
 -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는 체육 인프라 구축, 스포츠 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스포츠 분야 ODA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식 ODA 통계 체계에서 ‘스포츠’는 독립적인 섹터 코드(sector code)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음.
 - 현행 분류 체계상 스포츠 관련 ODA는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하위에 있는 ‘문화 및 문화 다양성’ 항목에 일부 포함되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항목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본고에서는 OECD 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설명 중 하나 이상에 스포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업 금액을 집계하여 주요 공여국의 스포츠 ODA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함.
 - 스포츠 관련 키워드가 사업명(project title), 사업 개요(short description), 사업 설명(long description)에 포함된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¹¹⁾
 - 다만, 공여국 및 다자기구별로 사업 설명의 기술 수준이 상이하고, 스포츠 요소가 사업의 일부로만 포함된 경우에도 집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스포츠 ODA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고의 제2장부터는 위의 방법론에 따라 CRS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사업을 ‘스포츠 ODA’로 통칭함.¹²⁾

가. OECD DAC 통계를 활용한 스포츠 ODA 현황 분석¹³⁾

- [추이] 최근 10년간(2015~24년) 개발도상국에 제공된 스포츠 ODA는 총 879건, 3억 3,456만 달러에 달하며, 사업 건수는 2021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지출 규모는 연도별 등락이 반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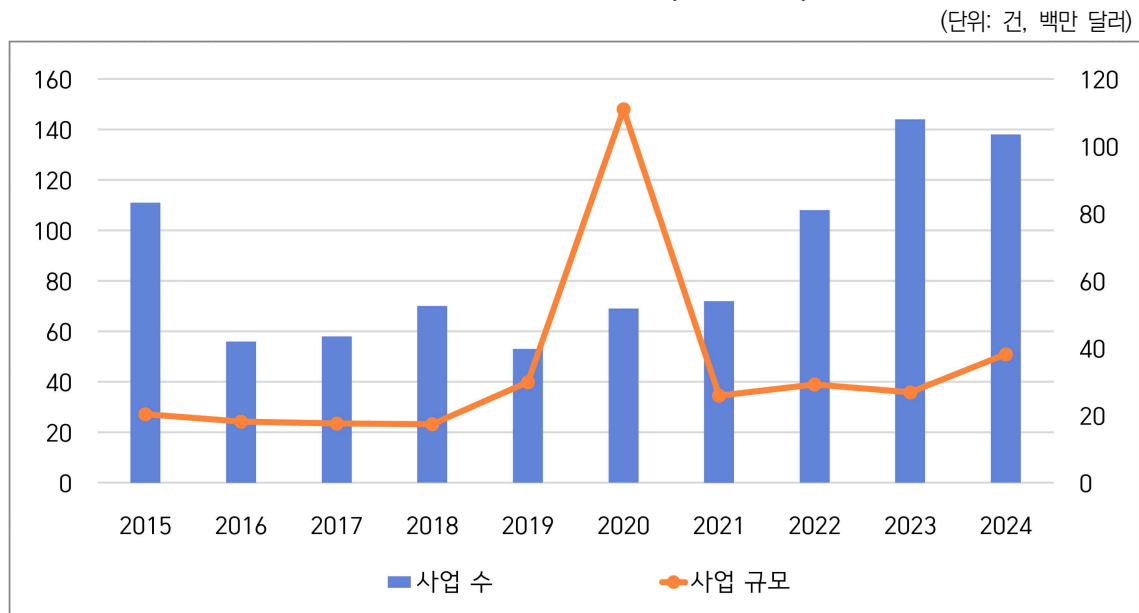
11) 스포츠 ODA 사업 식별을 위해 사용된 키워드는 총 68개로, 종목명(예: football, basketball, taekwondo, judo), 시설·인프라(예: stadium, gymnasium, sports center), 개념 및 프로그램 관련 용어(예: sport for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로 구분됨. 다만, 키워드 기반 매칭 방식의 특성상 일부 스포츠 사업이 누락되거나 비스포츠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12) SDP의 학술적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스포츠 관련 ODA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임.

13) OECD DAC CRS 데이터베이스는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및 다자기구의 ODA 통계를 포괄하며, 본고는 이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함.

- 20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현장 접근이 필수적인 스포츠 사업의 특성상 다수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리셔스에서 추진한 스포츠 복합단지(Sports Complex) 사업의 경우, 2019년 1,009만 달러, 2020년 2,039만 달러가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해당 연도의 지출 규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스포츠 ODA의 규모 추이 (2015~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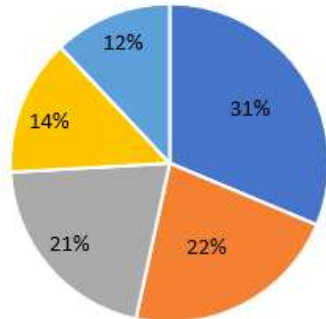


주: 지출액, 고정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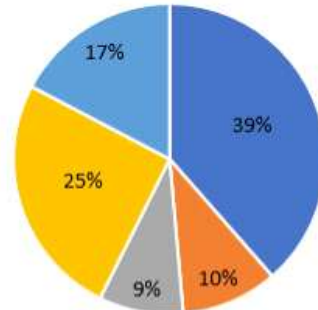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Explorer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수원 대상 소득 수준] 사업 수와 지출액 기준 모두에서 상위중소득국에 대한 스포츠 ODA 지원 비중이 각각 31%,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하위중소득국이 사업 수 기준 22%, 지출액 기준 10%로 뒤를 이었으며, 최빈개도국은 사업 수 기준 21%, 지출액 기준 9%로 나타남.
- 다국가 지원은 사업 수 기준 14%, 지출액 기준 25%를 차지하여, 사업 건수에 비해 지원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스포츠 ODA 수원국 소득그룹(사업수 기준)
(단위: %)

■ 상위중소득국 ■ 하위중소득국
■ 최빈개도국 ■ 다국가 지원
■ 기타 (지역 내 다국가 지원)

그림 3. 스포츠 ODA 수원국 소득그룹(지출액 기준)
(단위: %)

■ 상위중소득국 ■ 하위중소득국
■ 최빈개도국 ■ 다국가 지원
■ 기타 (지역 내 다국가 지원)

주: 지출액, 고정가격.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상위 공여국] 지출 규모 기준 상위 공여국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며, 국가별로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¹⁴⁾

- 독일은 전체 지출의 38.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제협력공사(GIZ)가 'Sport for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지난 10년간 꾸준히 운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20년에 2건의 사업만 수행했음에도 최근 10년 기준 2위 공여국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모리셔스 스포츠 복합단지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었기 때문임.
- 호주는 총 140건의 사업을 추진해 사업 수 기준 1위를 기록하였으나 지출 규모는 1,650만 달러 수준에 그쳐 소규모 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2023~24년에는 Australian Sports Partnerships Program 2단계 사업의 영향으로 지출액이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함.
- 캐나다는 사업 수 대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대학·연구기관·국제 NGO를 통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4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포츠센터 구축 사업 예산이 집행된 2020·2022·2023년을 제외하면 연간 집행액은 모두 100만 달러 미만에 그침.

14) 통계상 2위 공여국은 루마니아지만, 해당 지출의 98.3%가 2020년 단일 연도에 집중된 포괄적 고등교육 장학금(스포츠 전공 일부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스포츠 ODA로 특정하기 어려움. 추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상위공여국 목록에서는 제외함.

표 3. 스포츠 ODA 상위 공여국

(단위: 백만 달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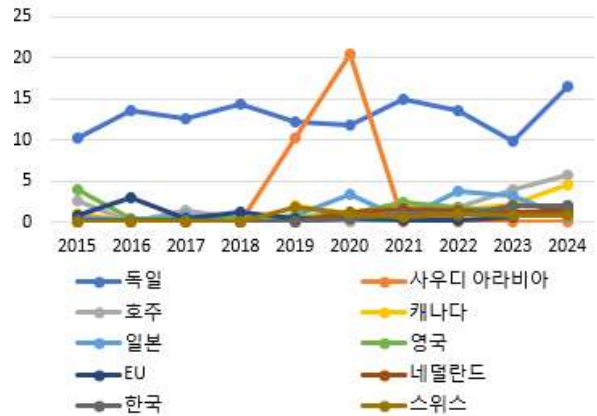
	국가	지원규모	사업 수
1	독일	130.03	106
2	사우디아라비아	30.63	8
3	호주	16.50	140
4	캐나다	15.10	87
5	일본	13.78	42
6	영국	13.01	87
7	EU	9.23	40
8	네덜란드	6.60	7
9	한국	6.58	15
10	스위스	5.82	22

주: 고정가격.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공여국별 스포츠 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상위 지원 분야] 지출 규모 기준 지원 분야는 교육,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보건, 정부 및 시민사회 순으로, 4개 분야가 전체 스포츠 ODA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교육 분야 지원 금액은 10년간 매년 1천만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 하위 분야로는 교육 일반과 고등교육이 전체에서 각각 32%, 21%를 차지함.¹⁵⁾
- 문화 및 문화 다양성을 하위 분야로 포함하고 있는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019~2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리셔스 스포츠 복합단지 사업의 영향으로 지출 규모가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보건 분야는 2015~21년까지 연간 백만 달러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부터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임.
- 정부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하위 항목인 분쟁·평화·안보 지원이 전체의 74%를 차지함.

15) 2020년 교육 부문 지출액의 급증은 루마니아의 포괄적 고등교육 장학금(스포츠 전공 일부 포함) 사업에 기인하며, 해당 사업은 당해 연도 교육 부문 지출액의 85%를 차지함.

표 4. 스포츠 ODA 상위 지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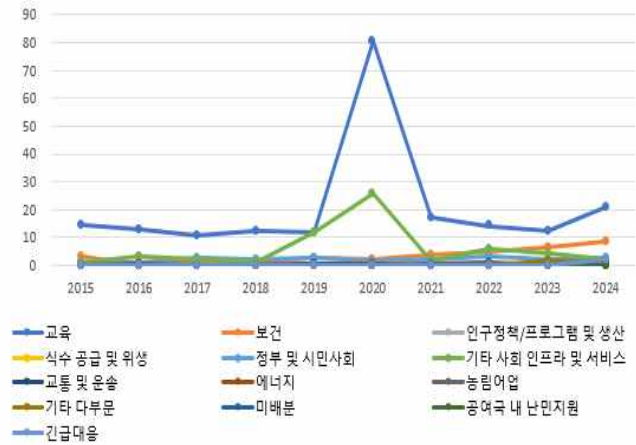
	분야	지원규모
1	교육	207.42
2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59.61
3	보건	34.61
4	정부 및 시민사회	21.90
5	기타 다부문	3.01
6	긴급대응	2.21
7	에너지	1.63
8	다부문 지원	1.46
9	농림어업	1.33
10	교통 및 운송	0.14
11	식수 및 위생	0.08
12	공여국 내 난민 지원	0.04
13	인구정책/프로그램, 생식	0.03

주: 지출액, 고정가격.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분야별 스포츠 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나. 주요 공여국의 스포츠 ODA 제공 현황

- [독일] 전체 스포츠 ODA의 38.9%를 차지하는 최대 공여국 독일은 교육(84%), 정부 및 시민사회(14%)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GIZ를 통해 'Sport for Development(S4D)' 글로벌 프로그램과 'S4D Africa'라는 아프리카 지역 프로그램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6. 독일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분야

(단위: %)



주: 지출액,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5. 독일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지원규모	비율
1	다국가 지원	63.16	48.6%
2	사하라 이남 다국가 지원	33.98	26.1%
3	요르단	14.04	10.8%
4	아프리카 다국가 지원	12.22	9.4%
5	탄자니아	1.41	1.1%
6	중동 다국가 지원	1.35	1.0%
7	부르키나 파소	1.22	0.9%
8	남수단	1.16	0.9%
9	브라질	0.64	0.5%
10	베트남	0.19	0.1%

-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는 스포츠를 교육·보건·고용·사회통합·강제이주 대응을 포괄하는 개발협력의 범분야 의제로 공식 도입함.¹⁶⁾
- GIZ가 추진하는 S4D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여아·젊은 여성의 참여 및 성평등 △보건 증진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적 결속과 폭력 예방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협력국의 자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스포츠·교육 정책 담당자에 대한 자문, 체육 교과 과정 및 훈련 자격증 개발, 훈련 과정 설계 및 매뉴얼 개발, 트레이너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180개 이상의 스포츠 시설을 보수·재건함.

■ [호주] 호주는 전체 스포츠 ODA 사업의 15.9%(140건)를 수행한 최다 사업 공여국으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고, 스포츠를 개발 수단인 동시에 지역 내 호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명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¹⁷⁾

그림 7. 호주의 스포츠 ODA 상위 자원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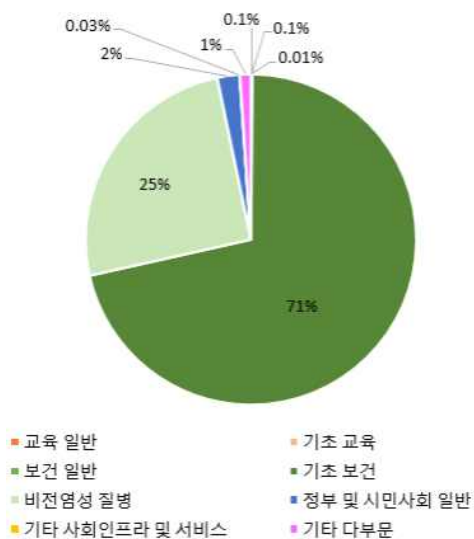


표 6. 호주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지원규모	비율
1	파푸아뉴기니	4.19	25%
2	오세아니아 다국가 지원	3.95	24%
3	사모아	1.46	9%
4	바누아투	1.41	9%
5	피지	1.29	8%
6	통가	1.11	7%
7	솔로몬제도	0.71	4%
8	아시아 다국가 지원	0.55	3%
9	인도네시아	0.51	3%
10	나우루	0.43	3%

주: 지출액,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호주는 1995년부터 호주-남태평양 스포츠 프로그램(1995-2006), 호주 스포츠 아웃리치 프로그램(ASOP, 2005-2009), 태평양 스포츠 파트너십(PSP, 2009-2020), 아시아 스포츠 파트너십(ASP, 2014-2018)을 통해 추진하며, 30년에 걸쳐 태평양·아시아 지역 스포츠 개발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왔음.¹⁸⁾
- PSP와 ASP를 통합·계승한 Team Up(ASPP, 2018~현재)은 연 AUD 600만 달러 규모로 7개 태평양 도서국에서 운영됨.

16) BMZ(N.d.), "Sport for Development"(검색일: 2026. 5. 11.).

17) DFAT(N.d.), "Sports Diplomacy"(검색일: 2026. 5. 11.).

18) Team Up(N.d.), "Sport Development"(검색일: 2026. 5. 11.).

- Team Up은 △여성·여아·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지속 △스포츠 조직의 안전·포용·접근성 확보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간 관계 강화를 3대 목표로 삼고, 성평등·장애·리더십·거버넌스·지식을 5대 집중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¹⁹⁾
- 지원 분야는 기초 보건(71.3%) 및 비전염성 질환 예방(25.2%) 등 보건 분야에 96.6%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PSP가 비전염성 질환 위험 요인 및 신체 비활동 해소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ASP 역시 보건 관련 행동 개선을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포함한 것과 연관함.²⁰⁾
- 수원 대상은 파푸아뉴기니(15건, 419만 달러), 사모아(15건, 146만 달러), 피지(15건, 129만 달러) 등 태평양 도서국에 집중되어 있음.

■ [캐나다]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스포츠 ODA를 꾸준히 제공해왔으며, 국제 NGO, 연구기관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보이고 있음.²¹⁾

- 캐나다 영연방 경기 협회(CGC)는 국제개발청(CIDA, 현 GAC)의 지원을 받아 영연방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CSDP)을 추진했으며, △스포츠 역량과 공공 스포츠 시스템이 부족한 국가 및 지역사회 지원 △위험에 처한 청소년, 소녀 및 젊은 여성,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CGC는 CIDA와 캐나다 스포츠부의 지원을 받아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캐나다 스포츠부는 국제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UN 스포츠 개발 및 평화 국제 실무 그룹(SDP-IWG)에 참여함.
- 최근 10년간(CRS 데이터 기준)의 주요 스포츠 ODA 사업은 ①토론토 소재 국제 NGO인 Right to Play가 GAC 재원을 받아 서아프리카·프랑코포니 아프리카에서 운영한 AHEAD(스포츠·놀이 기반 보건·교육·개발 프로그램), ②팔레스타인 현지 NGO인 MA'AN Development Center가 수행하는 'MA'AN/Together: Towards Gender-Responsive and Empowering Education for Children'(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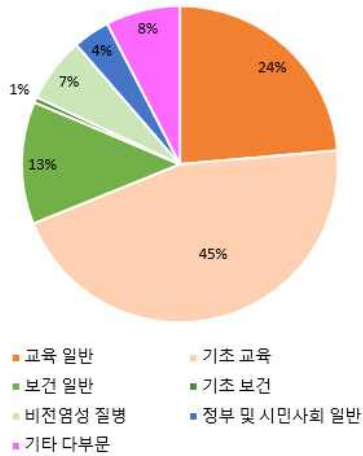
19) *Ibid.* DFAT(2025), "Australian Sports Partnership Program(ASPP): Mid-Term Review"(검색일: 2026. 5. 11.).

20) Team Up(N.d.), "Sport Development"(검색일: 2026. 5. 11.).

21) Darnell, Field, and Kidd(2025. 6. 27.),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in Canada over the Last 50 Years"(검색일: 2026. 5. 11.).

그림 8. 캐나다의 스포츠 ODA 상위 자원 분야

(단위: %)



주: 지출액,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7. 캐나다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지원규모	비율
1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10.81	72%
2	다국가 지원	1.61	11%
3	사하라 이남 다국가 지원	1.37	9%
4	자메이카	0.50	3%
5	카리브해 및 중앙아메리카 다국가 지원	0.43	3%
6	파키스탄	0.12	1%
7	그레나다	0.06	0.4%
8	우간다	0.05	0.3%
9	멕시코	0.04	0.3%
10	르완다	0.01	0.1%

■ [일본] 일본의 스포츠 ODA는 유도·합기도·가라테 등 일본 전통 무도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과정에서 발표된 Sport for Tomorrow(SFT)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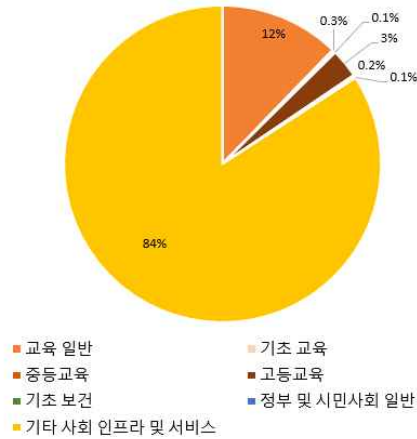
- SFT는 2013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확정을 계기로 2014년에 출범하여 개최 연도인 2020년까지 7년간 운영되었으며, 100개국 이상의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0만 명에게 스포츠의 가치와 올림픽·패럴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²²⁾
- JICA는 1960년대부터 JOCV(해외협력대)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분야 활동을 수행해왔고, JICA의 스포츠 이니셔티브는 ① 체육교육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②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포용과 평화 구축 ③ 스포츠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적 단결 강화 및 국제 연대 촉진으로 구성됨.²³⁾
- 2015~19년까지 연간 1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콩고민주공화국 유도·스포츠센터 건설 사업(2018~23년, 총 989만 달러)이 본격 집행되면서 지출 규모가 급증함.
- 이 밖에도 파라과이 스포츠훈련단지 장비 개선(72만 달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도장 리노베이션(36만 달러) 등 중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에콰도르·아제르바이잔·캄보디아·타지키스탄·브라질·세르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NGO를 통해 건당 3만~9만 달러 상당의 소규모 스포츠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2) Sport for Tomorrow(N.d.), "What is SFT?"(검색일: 2026. 5. 11.).

23) JICA(N.d.), "Sport and Development"(검색일: 2026. 5. 11.).

그림 9. 일본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분야

(단위: %)



주: 지출액,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8. 일본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지원규모	비율
1	콩고민주공화국	9.89	72%
2	캄보디아	1.99	14%
3	파라과이	0.72	5%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36	3%
5	브라질	0.27	2%
6	에콰도르	0.15	1%
7	사모아	0.09	1%
8	아제르바이잔	0.08	1%
9	타지키스탄	0.07	1%
10	콜롬비아	0.06	0.5%

■ [기타 주요 공여국] 지출 규모 기준 2위 공여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20년에 집중하여 총 3,063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EU·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스포츠 ODA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인도양섬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모리셔스 스포츠 복합단지 건설 사업(3,063만 달러)에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사우디 개발자금(SFD)은 FIFA와 MOU를 체결하여 개도국의 FIFA 인증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EU] 지난 10년간 매년 스포츠 ODA를 제공해온 EU는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54.2%), 교육(29.3%), 에너지(10.7%)²⁴⁾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왔으며, 주요 수원국이 코소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우크라이나·튀르키예 등 유럽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
- [네덜란드] 스포츠 ODA 지출액의 99.1%는 스포츠를 통한 취약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성평등·평화·화해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기업청(RVO) Sport for Development(S4D) 프로그램²⁵⁾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지아 여성 운동선수 대상 법적 지원 사업²⁶⁾을 추진함.
- [스위스] 스위스의 스포츠 ODA는 'Global RECAP(Global Regulatory and Fiscal Capacity Building Programme)' 한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 개발협력청(SDC)과 EU의 지원을 받아 IDLO(국제개발법기구), WHO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임.²⁷⁾

24)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추진된 스포츠 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음.

25) 독일 GIZ의 동명 프로그램(Sport for Development)과 별개로, RVO(네덜란드기업청)가 자금을 지원하고 KNVB(네덜란드축구협회)·KNHB(네덜란드하키협회)·ISA(International Sports Alliance·Right to Play 등 4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분쟁 예방·빈곤 감소·성평등 증진·청소년 고용 가능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함.

26) 조지아 스포츠 분야 여성 운동선수 보호를 위한 옹호 활동·소송 지원 사업으로, 스포츠 연맹·클럽 내 구조적 폭력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 및 성희롱 실태 통계 수집을 주요 내용으로 함.

27) WHO(N.d.), "Global Regulatory and Fiscal Capacity Building on Healthy Diets and Physical Activity(Global RECAP)"(검색일: 2026. 5. 11.). 보건 분야에 해당하며, 건강한 식이와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규제·재정 조치를 개발·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공무원·규제 당국·정책 입안자·학계·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가나·인도네시아·케냐·모리셔스·네팔·스리랑카·탄자니아·태국·우간다 10개국에서 운영 중임.

- [이탈리아] 주요 수원국은 남미·아프리카·동유럽·중동에 고루 분포하고 상위 지원 분야는 긴급대응,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집행 채널은 NGO(54%)와 UNRWA(43%)가 대부분을 차지함.²⁸⁾

3. 우리나라의 스포츠 ODA 현황과 시사점

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ODA 현황

- [전략 및 구조]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문화 분야 개발 협력 추진전략(안)」(2026. 5. 11.)에 스포츠 ODA 추진 방향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가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국가 간 우호 증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활용되어 왔음.
- 외교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우호 증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대사배 태권도 대회, E-스포츠 페스티벌, 하키·바둑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활용한 공공외교 행사를 재외공관을 통해 전개하고 있음.²⁹⁾
- 문화 ODA 중점과제 중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의 세부 과제에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과 난민·장애인 대상 지원으로 구분됨.³⁰⁾

그림 10.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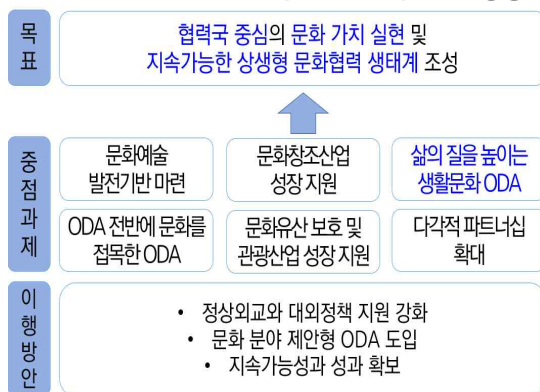


표 9. 스포츠 관련 세부과제 주요 내용

중점과제	세부과제	주요 내용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체육활동·리더십 교육 진행 - 협력국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촉진
		난민캠프 거주민과 협력국 내 장애인에게 육상, 태권도 등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여 역량 향상 도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 문화 분야 개발 협력 추진전략(안)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8) 긴급대응 분야 및 UNRWA 채널의 비중이 높은 것은 2024년 UNRWA를 통해 집행된 가자지구·서안지구 사업(USD 212만 달러)에 기인함. 해당 사업은 팔레스타인 난민 아동의 정신건강·심리사회적 지원(MHPSS) 및 긴급 교육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 체육교사 배치는 학교 상담사 배치·MHPSS 키트 배포 등과 함께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완화 수단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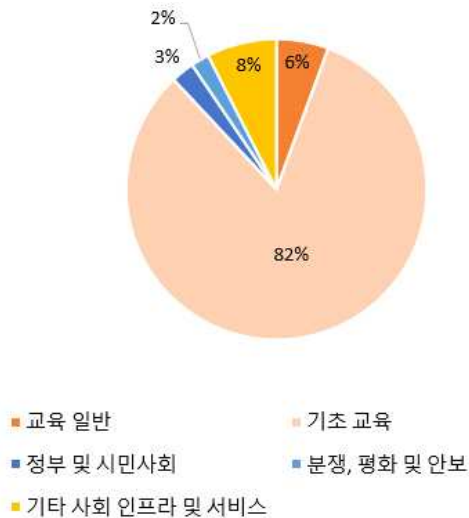
29) 외교부(N.d.), 「스포츠 공공외교」(검색일: 2026. 5. 11.).

30) 「문화 분야 개발 협력 추진전략(안)」에서 그동안 스포츠 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현황 분석을 통해 지적됨. 2027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협력국으로부터 스포츠 연구센터 설립 요청이 접수되는 등 스포츠 분야 협력에 대한 현지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타 공여국과 무상 분야(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교육 등) 공동사업의 시범 기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됨.

- 한편 2026년 5월 국회 아프리카포럼 세미나에서는 스포츠 ODA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예산 확보와 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 ODA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됨.³¹⁾

■ [지원 실적] 한국은 지출 규모 기준 10위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약 658만 달러를 교육(88%), 기타 사회 인프라(8%), 정부 및 시민사회(5%)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주요 수원국은 동티모르·말라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임.

그림 11. 한국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분야
(단위: %)



주: 지출액,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0. 한국의 스포츠 ODA 상위 지원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지원규모	비율
1	동티모르	4.98	76%
2	말라위	0.45	7%
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37	6%
4	아시아 다국가 지원	0.37	6%
5	캄보디아	0.29	4%
6	세인트루시아	0.13	2%

-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KOICA의 위탁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한 ‘동티모르 스포츠를 활용한 아동발달사업’이며,³²⁾ 이 외에도 ‘말라위 초등학교 및 마을 교육위원회 지원을 통한 초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창드림프로그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캄보디아 무술 강사 역량 강화 사업’, ‘세인트루시아 스포츠 지원사업’이 스포츠 ODA 사업에 해당함.

31) 성도현(2026. 5. 7.), 「임흥세 감독 “축구공 하나로 시작”...국회서 ‘스포츠 ODA’ 공론화」(검색일: 2026. 5. 20.).

32) KOICA(N.d.), 「동티모르 스포츠를 활용한 아동발달사업」(검색일: 2026. 5. 11.).

표 11. 한국의 스포츠 ODA 주요 사업목록

	사업명(시행기관, 기간/규모)	사업내용
1	동티모르 스포츠를 활용한 아동발달사업 (KOICA, 2020~25/650만 달러)	- 지역거점 운동장, 유소년 스포츠센터 등 스포츠 환경 개선 - 스포츠 교육 및 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 스포츠 지도자 역량 강화
2	말라위 초등학교 및 마을 교육위원회 지원을 통한 초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아이들과 미래, 2015~17/45만 달러)	- 교실·화장실 보수 및 교육 기자재 제공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미술·체육 교과 지도 역량을 갖춘 교사 양성
3	평창드림프로그램 (강원도, 2020/37만 달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환 - 동계스포츠 접근 기회가 부족한 아시아 지역 개도국 청소년을 강원도 평창으로 초청하여 동계스포츠 훈련과 한국 문화 체험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리브노 태권도홀 설립 지원 사업 (KOICA, 2023/37만 달러)	리브노 소재 직업고등학교 내 태권도 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자재 지원
5	캄보디아 무술 강사 역량 강화 사업 (경찰청, 2021~23/16만 달러)	- 스포츠를 치안·법집행 역량 강화 수단으로 활용 - 캄보디아 경찰 무술 강사를 대상으로 태권도·체포술 전문가 파견(연 2명) 및 초청 연수(연 2회)를 제공
6	세인트루시아 스포츠 지원사업 (KOICA, 2023~24, 13만 달러)	- 청소년 스포츠부에 교통수단 지원 2024 T20 크리켓 월드컵 개최를 위한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설치 사업 지원

자료: OECD Data Explorer, ODA Korea 통계 플랫폼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특징] 한국의 스포츠 ODA는 교육 연계형 사업 비중이 높고 동티모르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권도·평창 동계올림픽 등 한국형 스포츠 자산을 활용하면서 체육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분야가 전체 지출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를 교육 및 청소년 개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지출의 76%가 동티모르에 집중되어 있음.
- 태권도,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등 한국 고유의 스포츠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KOICA 태권도 봉사단 파견 사업을 포함할 경우 실제 스포츠 ODA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³³⁾
- 공여국 내 기타 공공기관 채널이 전체의 83.2%를 차지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전문기관이 사업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음.

나. 요약 및 시사점

■ [국제사회 동향 및 주요 공여국 특징] 주요 공여국들은 스포츠 ODA를 다양한 개발 목표와 연계하는 한편, 독자적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

- [범분야적 접근] 독일, 호주 등 주요 공여국들은 스포츠 ODA를 단순 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보건·성

33) 봉사단 파견 사업은 OECD Data Explorer, ODA Korea 등 현재 접근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스포츠 분야를 별도로 추출·집계가 어려운 바, 본 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평등·평화 구축 등 다양한 개발 목표와 연계하는 범분야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음.

- [독자적 프로그램] 독일은 장기적으로 브랜드화된 S4D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ODA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30년간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태평양 도서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왔음.
- [지속가능성 제고] 독일과 호주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협력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함.
- [스포츠 ODA 활용] 일본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과정에서 SFT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유도 등 자국의 전통 무도를 스포츠 ODA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 스포츠 ODA 강점] 한국은 국제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경험과 높은 스포츠 경쟁력,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토대로 스포츠 ODA 제공에 적합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경험] 한국은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02 한일 FIFA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스포츠 경쟁력] 한국은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부터 참가하여 1980년대 이후 하계올림픽에서 꾸준히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기록해왔으며, 1986년부터 2026년까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등 높은 스포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태권도 종주국] 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현재 세계 210개국 이상에 보급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지닌 스포츠 ODA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방향성 제언] 한국은 스포츠 외교와 스포츠 ODA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브랜드 프로그램 구축 및 국제 스포츠행사 개최 경험 활용을 통해 스포츠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 외교와의 연계] 외교부의 스포츠 공공외교 활동과 스포츠 ODA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 구축] 독일의 S4D, 호주의 Team Up과 같이 한국만의 정체성을 담은 스포츠 ODA 브랜드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고유의 자산 결합과 시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경험 활용] 주요 행사 개최 경험을 스포츠 ODA와 연계하여 스포츠 행정·시설 운영·대회 유치 역량 전수 프로그램을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음. KIEP